200-060. 예심종결 결정서사(金漢卿 외 29명)

■ 1930년 6월 30일 東京地方裁判所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한국 사람들 이 일본 東京 等地에 거주하면서 1927년 4월 朝鮮共産黨 日本總局을 결성하고, 같은 시기에 高麗共産青年會 日本總局을 설치하는 등 공산주의 활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실천한 혐의로 검거된 데 대한 東京地方裁判所 豫審判事의 豫審終結決定書 수록

- 1920년 露領 니코리스크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高麗共産黨(假稱 朝鮮共産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국내에서는 火曜會派라 하는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1925년 4월 20일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 개회를 계기로 같은 달 17일 金燐·金在鳳·金若水·曺奉岩 등 20명이 中華料亭 雅敍園에 회합, 처음으로 朝鮮共産黨을 조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어 동년 11월 신의주경찰서에 의하여 다수의 간부들이 검거되었으나, 이 검거에서 제외된 姜達永·洪悳裕 등이 12월 黨幹部를 보충하여 당세 만회를 기도, 1926년 8월경 경기도경찰에 의하여 재차 검거되고, 이 때에도 검거를 면한 安光泉·金俊淵·河弼源 등이 조직정비로 계속 활동하다가 1928년 2월 종로경찰서에 의하여 검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그들의 영향을 받아 1927년 4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조선공산당 일본 총국을 조직하고, 이어 4월 18일 高麗共産青年會 日本總局을 결성하였던 바, 이들도 일본경찰에 의하여 검거되고 공판에 회부되었다. 예심에서 공판에 회부키로 결정된 사람들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 金漢卿(28세) 忠北 提川, 宋昌濂(26세) 平南 江西, 金鶴儀(33세) 慶南 蔚山, 朴得鉉 (24세) 平北 定州, 秦炳魯(28세) 咸南 定平, 金鳳禧(32세) 慶南 泗川, 許義淳(26세) 黃海 信川, 李愚震(25세) 忠北 提川, 林鍾雄(28세) 全南 長城, 趙鶴濟(27세) 慶南 河東, 李元賢(22세) 平北 義州, 李起澤(27세) 全北 任實, 朴得龍(23세) 平北 定州, 李雲洙(29세) 咸南 北青, 金斗鎭(31세) 慶北 安東, 朴春星(25세) 慶南 晋州, 宋在洪(26세) 慶南 河東, 尹壽巖(25세) 慶南 蔚山, 金興燮(26세) 慶北 奉化, 金秉國(25세) 慶北 安東, 金錫舜(30세) 慶南 河東, 金正泓(28세) 咸南 永興, 文基璉(30세) 平南 江西, 沈在潤(25세) 慶北 達成, 朴台乙(25세) 全南 海南, 李相勛(28세) 忠北 鎭川, 姜春淳(29세) 慶南 晋州, 金容杰(26세) 咸北 鏡城, 鄭禧冕(28세) 慶南 泗川등 29명이다.
- 이들은 1925년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1928년 勅會 제129호 치안유지법 중 개정의 건 제1조 2항,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거, 공판에 회부되었다.
- 한편, 이들에 대한 판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선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기록은 東京裁判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